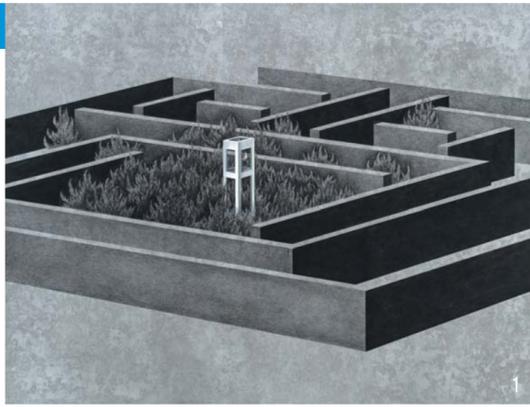


조인호 평론가가 본 수영대회기념 청년작가14인전 <상>

# 삶의 풍경과 내면의 초상을 만나다



고차분 - '집'이 주는 정겨움  
 김춘수 - 긴장 속 당당함 '위트'  
 윤준영 - 불확실한 사회 불안 묘사  
 이인성 -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  
 정승원 - 판화에 담은 담백한 일상  
 8월 5일까지 금호갤러리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DEEP DIVE INTO YOU' (8월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시는 '2019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폐막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지난 여름 대회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참가선수, 시민들의 추억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모두 함께 되새기자는 기획전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역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무탈하게 잘 극복해 가자는 응원이 담겨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라는 지난해 대회 슬로건과 결을 맞췄던 'DEEP DIVE INTO YOU' 전시명은 그대로 쓰고, 30대 주축인 14명의 참여작가 가운데 10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초대했다. 대회의 지속효과와 함께 이들 청년작가들도 함께 성장해 가자는 기획의도이다. 그러면서 수영대회 기념전이지만 '수영'이나 '물'과 같은 주제설정이나 특정한 틀을 두지는 않았다. 그

런 만큼 출품작들도 소재나 매체, 표현형식에서 일정한 틀거리 없이 동시대 사회적 관점과 예술세계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펼쳐놓았다.

전시성격상 '물'과 연관된 작품들을 먼저 찾자면 고차분, 김춘수, 윤준영, 이인성, 정승원의 경우다. 물론 이들 작품에서 물은 일상세계이기도 하고, 현상적 소재만이 아닌 삶의 비유나 내면을 드러내는 심리적 매개물로 차용되어지기도 했다.

가령, 김춘수의 '다이빙' (2020)은 놀직한 스프링 보드에 올라선 푸른 비키니의 여인상이다. 위태로울 수도 있는 높고 비좁은 보드 위에서 풍만한 몸매로 팔을 들어 올려 몸을 푸는 포즈는 긴장 속에서도 당당함과 여유를 보여주는 위트 있는 작품이다.

정승원의 'Swimming Pool' (2020)은 실내 수영장 풍경을 단순화시킨 실크스크린 판화다. 각각의 자세들로 수영을 즐기면서 팔장 한쪽에서 쉬거나 사위하는 모습 등등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풍경이다.

- 1 윤준영 작 '가든 밤의 정원'
- 2 고차분 작 '여름 휴가'
- 3 정승원 작 '양동시장'
- 4 이인성 작 '돌아온계절-아버지의선물'
- 5 김춘수 작 '다이빙'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 사랑을 담은 마음의 치유 선물이 일러스트처럼 밝고 담백한 표현들에 담겨져 있다. '비키니 베를린' (2019)나 '양동시장' (2017) 등도 정승원 특유의 삶의 풍경 묘사들이다.

또한 고차분의 '여름해변'과 '여름휴가' (2020)는 이즈음의 해변풍경을 색면추상처럼 단순화시켜 표현한 연작이다. 백사장과 수면공간의 비율이 달리 적용되긴 했지만 넓고 간결한 채색, 잔잔히 비치는 빛질 흔적들, 피서객들처럼 백사장을 점점이 채운 기호 같은 집들은 삶에서 '집'이 갖는 복합적 의미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주관적 해석으로 평온하고

차분한 정겨움을 보여준다.

이들과 달리 물이 인생이나 삶의 무대로 비유된 작품들도 있다. 이인성의 '여름날의 수확' (2020)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잠수하여 삶의 목표와 가치들을 건져 메고 물으로 올라서는 자신의 내면초상이다. 청년기의 번민과 불확실성, 자기다짐 등의 심적 상태를 단순화되 표현성 강한 묘사와 주황색 점들로 비유시키고 있다. '돌아온 계절-아버지의 선물' (2019)도 세대를 넘겨받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내면 이야기이다.

윤준영의 회색색 바다풍경들도 묵직한 적외 속에

서 쉽게 일렁이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은유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다. 망망한 바다의 요동치는 파도 한 가운데 망루를 높이 세운 '소란한 침묵' (2018), 외부의 접안조차 허용하지 않는 듯 너른 바다 가운데 높은 축대로 둘러진 절고도 사각 구조물과 그 안에 빼곡히 채워진 수물, 둥근 달을 향해 뻗어 오른 망루가 있는 'Fort' (2020), 외딴 섬 수풀더미에 자신만의 아성인 작은 집 한채를 들여놓은 'There' (2019) 등도 거대사회 속 개인과 타인들과의 관계, 불확실성, 두려움과 호기심 등이 복합된 윤준영의 심상초상들이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대담미술관, 31일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함께하는 블루투어'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이 오는 31일(오 후3시-6시)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함께하는 블루투어' 등을 진행한다.

'함께하는 블루투어'는 현재 열리고 있는 고명인 기획초대전 '프레임을 통하여 나를 보다-SPARKLING DREAMS'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겨울 프레임에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이 더해진 화려한 작품을 감상하고, 겨울을 통해 내가 그림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해 볼 수 있으며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나눈다.

'타임머신을 타고-'는 '나의 삶'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자신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해 나만의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해보는 프로젝트다. 완성된 스토리텔링북을 소개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는,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담미술관은 연중무휴로 밤 9시까지 운영하며 전시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은 미리 예약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8월 2일~30일 시민대학·글쓰기·독서 등 강좌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라는 가치 창조에 역점을 둔 광주시민인문학이 82기 정기강좌를 연다.

오는 8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 강좌에는 시민대학, 글쓰기교실, 독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펼쳐진다.

월요일 시민대학 시간에는 이향준 교수가 '공통체와 유교윤리'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은 격주로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이야기하며 목요일 독서동아리 시간에

는 신우진 이사장이 '목독화-심인심책'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나눈다. 토요일(오후 2시) 영화동아리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와 진정환 씨가 '영화로 읽는 인문학-삶, 여성, 가족, 개인'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수별, 강좌별 등록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녀와 고양이가 드로잉 북 밖으로

### 최순임 전 31일까지 향담갤러리

꼬리를 한껏 치켜든 고양이, 꼬리리를 타고 가는 새침때기 도도한 소녀. 갤러리가 문화 속 공간으로 변신했다.

최순임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BON VOYAG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출판한 동명의 드로잉 북 원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일부 작품은 아크릴 평면 작업으로 발전시켜 전시하고 있으며 조각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는 장점을 살려 그림 속 주인공들을 조각 작품으로도 선보이고 있다.

작품에 늘 등장하는 꿈꾸는 소녀 '모리'와 걸을 지키는 고양이 '양양' 등 자유롭게 그려나간 드로잉 작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장에 간단한 그림도구가 갖춰져 있어, 마음껏 그려볼 수도 있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최 작가는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광주시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



관 국제 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로 활동했다. 문의 062-266-12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문화원, 코로나 극복 사업 공모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지역문화계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사업을 8월말까지 통합공모한다. 공모사업은 'ACC 유휴 공간 디자인 창작 지원', '지역예술대학 졸업작품전' '무빙시어터 사용 지원' 등 3개 분야로 광주, 전남·북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대학·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ACC 유휴 공간 디자인 창작지원'은 전담 일부 공간을 보다 매력적이고 편안하게 꾸미는 데 중점을 뒀다. 향후 조성되는 공간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예술대학 졸업작품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미래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품도록 제작비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4개 대학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예술대학과 지속가능한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인재들에게는 창작동기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무빙시어터 사용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제, 투어 등에 적합한 이동식 무대 트럭을 임대료 없이 운영비만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외 행사를 준비하는 예술단체나 지자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518memory@aci-k.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 겨울의 차가운 냉기 ]  
[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